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,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에 기여

- 2019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'최우수상' 수상 -

○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(원장 정만복)이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9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'최우수상'을 수상했다.

○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실천의지·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.

○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3개 영역, 13개 평가지표로 반부패 추진 의지·노력, 반부패 제도 운영, 반부패 시책추진 등에 대한 실적을 점수화한 것으로 수련원은 '최우수상' 기관표창과 함께 150만원의 시상금까지 받았다.

○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5백만원 이상의 물품·공사·용역 계약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'계약 사전 심의제도'와 미래 청렴한 인재 육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'청렴당당 청소년 청렴교육'등 다양한 시책 추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.

○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정만복 원장은 "반부패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"라며 "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수련원 운영을 통해 부패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말했다.

○ 2002년 개원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. 그 동안 대통령 표창, 우수청소년시설,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으로 표창 받은 바 있으며,「2016, 2018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」에서 '최우수등급'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.